

**삼성전자, 유무선 원격조정 '하우젠 로봇청소기' 上市**



삼성전자가 청소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로봇청소기를 국내시장에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7월 4일 청소 경로 중복을 최대한 피해 효율을 크게 높이고, 청소 중 전력이 부족하면 스스로 충전기로 돌아와 전력을 공급받는 인공지능형 '하우젠 로봇청소기' 2개 모델(모델명 VC-RS60, VC-RS60H)을 출시했다.

하우젠 로봇청소기는 동급 최고수준의 청소효율, 5중 센서에 의한 안전성, 자동 충전 및 유무선 원격 작동 기능에 따른 편의성 등을 두루 갖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 주행각도와 주행거리를 계산해 최적의 청소 경로를 그리며 청소하는 셀프 맵핑(Self-mapping)방식을 적용해 효율을 높였다. 청소 속도도 1초당 0.4m로 현재 시판 중인 기존 제품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빨라졌다.

먼지방과 공기방을 분리해 먼지와 공기가 섞이지 않는 트윈챔버 시스템을 채택, 먼지가 많이 쌓여도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강한 흡입력이 오랫동안 유지되며, 먼지 봉투를 교체하는 번거로움

도 없다.

하우젠 로봇청소기는 청소 중 배터리 충전량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충전기를 찾아가 전기를 공급받는 자동 충전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가정용 전화선을 연결하면 외부에서 전화 한 통으로 청소를 지시할 수도 있다.

**LG전자 보급형 듀얼코어 노트북 출시**



올해초 세계 최초로 인텔의 나파 플랫폼을 적용한 듀얼코어 노트북 PC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을 주도한 LG전자가 이번엔 부담없는 가격의 보급형 듀얼코어 노트북(모델명:V1-WCUP4)을 출시했다.

LG전자(www.lge.com 대표 : 김쌍수)가 이번에 출시한 보급형 듀얼코어 노트북인 V1은 최신 Intel Dual core CPU와 ATI 칩셋을 장착한 고성능 노트북PC로 시스템과 그래픽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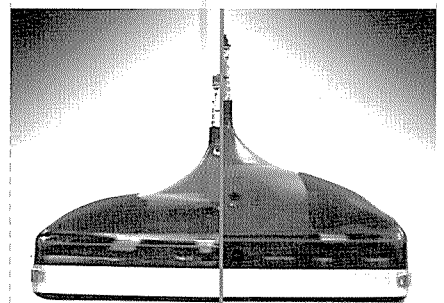
이 제품은 고성능 그래픽 코어(ATI Radeon Xpress 200M)장착으로 3D를 지원하며, DDR2 667MHz 메모리와 50% 빠른 SATA 방식의 HDD(초당 150 메가비트 자료 전송)를 적용, 프리미엄 노트북에 버금가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준다.

또한, 듀얼코어의 빠른 처리 능력에 동반하는 발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신 방열 기술인 "탄소 나노튜브(CNT)" 기술을 적용해 동급 제품에 비해 발열온도를 2~30C정도 낮췄으며, 270니트(nit) 밝기의 화인브라이트LCD(Fine Bright LCD)를 적용, 동급제품대비 약 35%정도 밝아졌다.

LG전자 DDM마케팅팀장 박시범 상무는 "이번 신제품은 기존 듀얼코어 노트북에 다소 가격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객들이 비교적 부담없는 가격에 듀얼코어 노트북을 구입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디자인과 성능을 앞세운 다양한 제품으로 듀얼코어 시장을 석권해, 노트북 선도기업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I 세계 첫 30cm 이하 브라운관 개발**



삼성SDI가 세계 최초로 브라운관 두께를 30cm 이하로 구현한 초슬림 브라운관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32인치 슬림 브라운관(35cm)을 개발한 삼성SDI는 빅슬림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물론이고 제2의 슬림 브라운관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는 브라운관 두께를 29.9cm로 줄인 '21인치 울트라 빅슬림(Ultra Vixlim)'을 개발했다고 지난 6월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21인치 빅슬림 브라운관(35.2cm)에 비해 두께가 5.3cm 얇아진 29.9cm다.

삼성SDI는 오는 3분기 월 최대 생산능력 30만대인 중국 선전 공장에서 '21인치 울트라 빅슬림'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가 절감형 모델 전환과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고부가 제품인 빅슬림 브라운관의 두께를 30cm 이하로 줄여 슬림브라운관 차별화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는 올해 안에 30cm 이하 28인치 슬림 브라운관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32인치(35cm)와 29인치(36cm) 빅슬림 브라운관 두께를 30cm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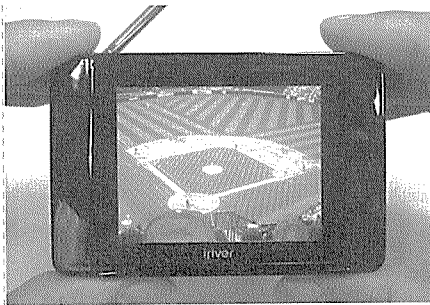
### 큐리텔, 시어터폰 출시



팬택계열이 동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40만원대 초반의 '시어터폰'을 지난 5월 3일 선보였다. 이 제품(모델명 PT-S200)은 17.9mm 두께의 슬라이드 타입으로, 생생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대형 스피커와 QVGA급 LCD를 탑재해 깨끗한 음질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 레인콤 지상파 DMB 전용 단말기 '포켓 TV' 출시



지난 6월 23일 출시된 이 제품은 가로 7cm, 세로 5cm로 레인콤 MP3플레이어 'U10'과 유사한 크기다. 2.2인치 26만 컬러의 QVGA급 TFT-LCD가 적용됐으며 스피커는 내장하지 않아 이어폰을 사용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다. DMB TV·DMB 라디오·FM 라디오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지만 녹화·녹음·MP3 파일 재생 기능 등은 갖추지 않았다. 또 내장형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한번 충전으로 최대 3시간까지 TV를 시청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7월부터 부산·광주·제주 등에 지상파 DMB 서비스가 확대되면 월드컵 특수로 반응이 좋을 것"이라며 "회사가 '탈(脫) MP3플레이어' 전략을 선언하면서 선보인 첫 작품이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신제품은 저장 장치와 기타 멀티미디어 파일 재생 기능을 추가하지 않아 다른 DMB 단말기보다 저렴한 12만9,000원이다.

구입은 제품 출시일에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할 수 있다.

### LS산전, 자동부하전환개폐기 신제품 출시

LS산전은 지난 2년간 5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자동부하전환개폐기(브랜드명 Tri-MEC)'를 개발했다고 지난 5월 24일 밝혔다.

LS산전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는 10 사이클(167ms 이하)의 고속 전환시간을 확보, 사용자에게 안정되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또 기존 제품에 비해 폭 크기를 약 35% 줄였으며 배전반 도어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디지털형 제어함을 채택해 배전반의 소형·경량화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정격 단시간 전류 용량을 12kA/s에서 16kA/s로 향상하고 주전원의 결상 발생시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부가해 안전성을 높였다. 디지털형 제어함을 채택해 사고발생 이력을 최대 20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 사고 분석과 이력 관리가 용이하다.

대형 LCD 표시창을 통해 각종 설정값의 표시 및 전압, 전류의 사용상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전원상태 △부하도장상태 △제어 전원 상태 등 다양한 출력 접점을 보유하고 있어 원방 및 현장에서 계통 운용상태 및 자동부하전환개폐기의 상태 감시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밖에 부하 측의 배선 작업시 접속재가 필요없는 구조로 설계돼 설치의 편리성 및 비용의 절감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